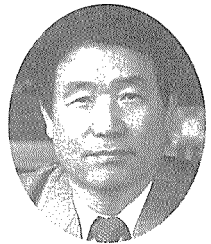


## 제5차 세계동위원소대회 참가차 벨기에를 다녀와서



박재우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지난 4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5차 세계동위원소대회(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sotopes: 5ICI)가 개최되었으며 필자는 논문발표 목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제5차 대회는 유럽연합(EU)의 부속기구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치료방사선학 및 종양학회(ESTRO)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벨기에에서 행사가 있었지만, 중국(1차), 호주(2차), 캐나다(3차), 남아공(4차)에 이어 유럽연합에서 개최되는 행사라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독일, 영국, 프랑스는 이런 저런 일로 몇 번 갔다 왔으나 벨기에에 관해서는 유럽에서 국토가 좁은 베네룩스 3국의 하나, 수도가 브뤼셀이고 유럽연합(EU)의 본부가 있고,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벨가툼이라는 회사가 있었다는 정도 밖에 몰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 제5차 대회

에 참가하는 국내 참가단은 총 30명으로 꽤 많은 편이었는데 2007년에 있을 제6차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대표단 12명이 참가하고, 방사성동위원소협회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사람들이 논문발표를 신청하였기 때문이다. 국내 참가단은 23일(토)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23일 저녁 8시경 브뤼셀 공항에 도착하였다.

한국인 현지가이드와 대형 버스가 미리 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시간은 늦은 저녁이었지만 아직도 해가 많이 남아 있어 북유럽의 긴 낮을 실감할 수 있었다. 호텔로 가는 도중에 나토사령부 건물을 볼 수 있었다. 미소 냉전 시대에 탄생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사령부가 처음에는 파리에 있었는데 후에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함에 따라 벨기에로 옮겼다고 한다. 밤 11경에 버스는 브뤼셀 중심에서 상당히 벗

어난 한적한 시골의 Comfort Inn Erasmus Hotel에 도착하였다.

앞으로 일주일동안 이 호텔에 묵으면서 학회장까지는 매일 버스로 출퇴근 한다고 한다. 이번 동위원소대회기간 동안 마침 유럽수산물박람회(European Sea Food Expo)가 브뤼셀에서 개최 되어 시내의 호텔은 구하기가 힘들어 외곽지역에 구했다고 한다.

24일(일): 참가단 일행은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브뤼셀 도심 관광을 갔다. 벨기에는 불어와 네델란드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리의 모든 표지판이 이 두 가지 언어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프랑스와 가까운 브뤼셀에는 불어가 주로 사용되고 북쪽 지역은 네델란드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북쪽에 가서 불어를 사용하면 잘 안 통한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브뤼셀에는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온 아랍계 이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이들이 식당업 등 굶은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 찾아간 곳은 브뤼셀 시내 상가지역의 중앙에 있는 그랑

플라스(Grand Place)이다. 옛날 시장(Market Place)이 섰던 장소로 15세기 고딕 양식의 탑이 있는 시청사, 17세기의 길드 하우스, 왕의 저택이 장방형의 대광장을 둘러싸고 있다. 16세기에 건축된 왕의 저택은 현재 시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광장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은 과거 마차가 다녔던 길로서 지금은 관광인파가 붐벼서 지나다니기가 힘들 정도이다. 길 양옆은 벨기에 특산물인 레이스, 무늬양탄자(tapestry), 여러 가지 종류의 초콜릿,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광장 근처에는 유명한 '오줌 누는 소년'의 청동상이 골목길 모퉁이에서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어느 부자가 군중속에서 아들을 잃어 버렸는데 5일 만에 동상이 있는 이 자리에서 오줌을 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기쁨에 넘쳐서 동상을 세웠다고 한다. 그랑플라스 근처에는 마치 우리나라의 바닷가에 온 것처럼 조개, 새우, 게 등 여러 가지 해산물을 전시해 놓고 요리해 주는 음식점이 늘어서 있었고 우리 일행은 여기서 홍합



브뤼셀 시내의 개선문

과 새우를 곁들인 점심을 먹었다. 요리는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맛이 없었지만 생맥주 맛은 기가 막히게 좋았다. 그랑플라스 관광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왕궁, 개선문 등 몇몇 유명한 곳을 둘러보았는데 모두가 웅장한 규모와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된 전형적인 유럽식의 건축물들이다. 입헌 군주국인 벨기에 왕이 거주하는 왕궁은 왕 일가가 여름철 휴가를 떠나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고 한다.

벨기에 독립 50주년을 기념하여 1880년에 건축되었다는 개선문은 양옆으로 펼쳐진 긴 회랑과 3개의 거대한 아치로 이루어졌다. 개선문 앞에는 매우 큰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주위는 수백년 묵은 마로니에가 숲을 이루는 공원이 있다. 벨기에는 오래전부터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델란드의 지배를 받다가 1831년 독립하였다. 1908년 국왕 네오폴드 2세 때는 국토의 70배가 넘는 아프리카 콩고를 식민지로 넣었고 1960년까지 반세기 동안 지배하면서 본국에 많은 이익을 가져왔다고 한다.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이 벨기에의 특산물인 것도 콩고에서 원재료를 들여오면서부터라고 한다. 벨기에 역사에서 네오폴드 2세가 다스리던 시절이 황금기인 듯 했다.

저녁에는 학회 참가자를 위한 환영각테일 파티가 있기 때문에 관광을 마친 일행은 동위원소대회가 개최될 유럽연합(EU) 본부로 이동하였다. EU본부는 본부건물과 옆에 있는 Charlemagne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동위원소대회는 Charlemagne 건물에서 개최되었다.

본부건물은 위에서 보면 십자가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 EU의 모태는 유럽경제공동체(EEC)·유럽철강공동체(ECSC)·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3개 기구

였으며, EEC 본부가 브뤼셀에 있었기 때문에 EU 본부도 브뤼셀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따지고 보면 강대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가운데 어느 나라에 두면 균형이 맞지 않으니 그럴 법도 하다. 행사장으로 들어갈 때는 보안 검열이 철저하였는데 비행기 탑승할 때처럼 항상 X-ray 검색기를 통과해야만 했다. 아마 EU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하거나 테러용의자가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여겨진다. 행사장은 EU의 회의시설답게 편리한 온갖 장비를 다 갖추고 있었다. 여러 방향에서 볼 수 있는 다중 투사장치 및 스크린, 책상마다 부착된 동시통역 장치 및 인터넷 단자, 발표장 바깥에서 휴식을 하면서도 발표를 시청할 수 있는 TV 모니터를 갖추고, 건물내에는 무선인터넷이 가능하였다.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는 대회 위원장의 환영사와 유럽의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시설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7시부터 환영각테일파티가 이어졌다.

**25일(월):** 오전에는 한국의 6차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과기부차관의 연설이 있었고 오후부터는 6개의 기술분야로 나누어 Technical Session이 진행되었다. 발표 주제는 대부분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표지화합물 합성, 의학적 응용에 관한 것이었고 일부는 공업적 응용 및 환경분야 응용에 관한 것이었다.

**26일(화):** 발표될 주제를 훑어보니 별로 관심이 가는 내용이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수산물박람회에 가보기로 작정하였다. 브뤼셀의 지하철(Metro)은 중심가를 ㄷ자 형태로 왕복하는 노선과, 동서로 운행하는 노선, 남북으로 운행하는 노선 3개가 있다. 우리 일행이 묵은 호텔은 동서노선의 서쪽 종점인 Erasmus

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산물박람회장은 남북노선의 거의 북쪽 끝인 Heysel역에서 내려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 EU 본부가 있는 Schuman 역에서는 동서노선과 남북노선을 다 탈 수 있어 편리하였다. 3일간 개최되는 박람회의 입장료가 무려 60유로나 되어 망설여졌으나 여러 가지 수산물을 마음껏 시식할 수 있다는 말에 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박람회장의 입구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입장권을 구입하는 데만 무려 한 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다. 박람회는 유럽지역의 수산물 생산자 및 가공업자들이 자기네 생산품을 전시하여 소개도 하고 판촉활동을 하는 자리였다. 보세창고처럼 생긴 엄청난 창고 전체가 전시부스로 가득 차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우리가 즐겨 먹는 특이한 해산물(오징어, 전복, 홍합 등)도 냉동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었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유럽에 속하지 않는 국가 회사들의 전시장도 보였다. 일부 전시장은 시식코너를 마련하여 자사 제품을 활용한 요리를 제공하

고 있다. 한국에서 먹기 힘든 비싼 왕새우와 바다가재 요리는 실컷 먹었지만 구경삼아 입장한 나로서는 입장료 60유로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27일(수): 한국에서 온 참가단의 발표가 거의 없는 날이어서 현지가이드의 주선으로 원래 예정에는 없었던 벨기에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안트베르펜으로 관광을 갔다. 안트베르펜은 로테르담에 이어 유럽 제2의 무역항이며 벨기에 제일의 무역항이다. 쉬켈드강가에 자리 잡은 안트베르펜은 13C 섬유산업으로 발전을 시작하여 현재 세계적인 패션디자인 교육으로 유명하다. 15C 이후 네델란드로부터 이주한 유대인을 중심으로 다이아몬드 연마공업이 발달하여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거래소가 있고 고급 상가가 즐비하여 아주 부유한 도시라는 느낌이 들었다. 동화 ‘플란다스의 개’의 배경이기도 한 이 도시에는 완성하는데 2백년이나 걸렸다는 벨기에 최대의 고딕양식 교회인 성모대성당이 있고, 그곳에는 동화속의 플란다스 개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안트베르펜 거리 및 성모대성당

럼 묘비를 만들어 놓았고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는지 일본글이 쓰여 있었다. 성당안에는 안트베르펜이 낳은 17세기 바로크회화의 대표적인 화가 루벤스의 그림 '부활'을 볼 수 있다. 성당과 가까운 곳에는 브뤼셀의 그랑플라스와 유사한 시청과 길드조합 건물이 둘러싸고 있는 시장광장이 있다. 현지 가이드의 친구가 운영한다는 한국식당에서 삼겹살구이로 점심 식사를 하고 브뤼셀로 돌아왔다. 저녁에는 동위원소대회 주최측에서 마련한 만찬에 모두 참석하였는데, 만찬장소가 과거 수산물 공판장으로 사용하던 곳여서 분위기도 어수선하였고 음식도 맛이 없는 편이었다. 만찬도중 사회자가 차기대회를 개최할 국가로 한국을 말하자 우리 참가단 전원은 박수 세례를 받았다.

28일(목): Technical session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발표장마다 참석자들의 수가 몇 명 되지 않았다. 오후 4시부터 대강당에서 closing session이 있었다. 대회 의장인 Chemaly로부터 세계동위원소대회의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있었다. 향후 대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 세계동위원소 대회가 다른 유사한 학술 행사인 International Isotope Society (IIS)에 비하여 전문성이 부족하고 참석자 수도 적은 편이라는 지적, 아직 학회(society)로 발전하지도 못한 점, 발표 주제가 산만하고 학술적 가치가 낮은 내용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학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학술적 가치가 낮고 발간하는 학회지가 없는 상황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잘 납부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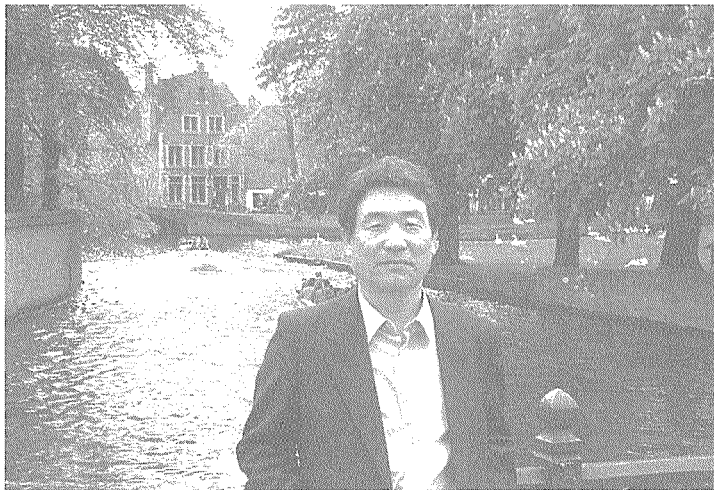
발표를 듣고 있다 보니 지금과 같은 단순한 학술행사가 반복되다 보면 앞으로 대회 규모도 점점 줄어들 것이란 생각이 들면서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아 있음을 느꼈다. 대회 행사가 끝날 무렵 차기 대회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우리측 대표단이 준비해간 홍보 영상물을 시연하였다. 저 유명한 사마린치의 '꼬레아' 선언을 시작으로 '손에 손잡고...' 등 요란한 음악이 터져 나오면서 조금 전의 가라앉은 분위기가 일순간에 대한민국 일색으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곳에 참석했던 다른 나라 참가자들도 덩달아 유쾌해지는 모양이다.

29일(금): 모든 학술행사가 끝나고 주최측에서 마련한 Technical Tour가 있는 날이다. 벨기에 원자력연구센터인 SCK-CEN 또는 방사성원소연구소(IRE) 및 MDS-Nordion의 동위원소 생산시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다. 사전등록시에 이 부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에는 호텔에 쉬면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도심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았다.

30(토): 참가단 일행은 오전 일찍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벨기에 서쪽에 위치한 브루헤(Bruges)로 관광을 갔다. 브루헤는 11C초엽까지는 항구도시였지만 갑자기 바닷물에 모래가 밀려와 항구앞 바다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도시 전체가 운하로 연결되어 운하도시가 된 곳이다. 원래 섬유 수공업이 발달하여 무역의 중심지였으나 산업혁명으로 주력 산업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다른 도시로 무역중심이 이동하였다, 19C까지만 해도 운하를 통하여 바다로 물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현재 바다로 나가는 수로는 차단되었지만 운하

는 관광객을 실은 보트가 다니는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되었다. 돌로 지은 고풍스런 집들과 운하 주변에 늘어선 마로니에 꽃, 그 밑에 누고 있는 백조들의 정경이 마치 그림에서나 본 듯한 아름답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마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작은 베니스라 부른다고 한다. 마을 곳곳에는 아치형의 다리가 놓여 있고 그 밑으로 관광객을 실은 보트가 지나다니고 있다. 운하의 물이 외부와 교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놀라웠다. 17C까지 이곳은 유럽전역에 걸쳐서 유명한 ‘플란다스 레이스’의 생산지였다. 지금도 이곳의 아낙네들은 레이스자수를 놓는다고 한다. 돌다다미가 깔린 마을 골목길은 발굽소리를 내면서 관광

객을 실은 마차가 지나가는 광경이 자주 보였다. 마을 곳곳에는 레이스, 무늬양탄자(tapestry) 등 이곳의 기념품을 파는 상가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마을 골목길이 끝날 무렵에는 넓은 광장(Marked Place)이 나타났다. 광장 주위에는 13C에 건축했다는 종각탑, 14C에 건축한 고딕양식의 읍청사, 길드조합,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예수의 성혈을 모셨다고 전해지는 12C의 교회 건물이 고색창연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종각탑은 높이가 80여미터로 366계단을 거쳐 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주변의 평화스런 시골풍경을 훤히 볼 수 있다고 한다. 읍청사는 과거 주민자치로 정치를 하던 곳이다. **KRIA**



브루헤에서의 필자